

조합원 폭행! 욕설! 대자보 무단 훼손!

폭력만행 총학생회는 사퇴하라



조합원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있는 총학생회장 엄태웅과 (전)부총학생회장 오일환(위) 대자보를 뜯고있는 총학생회 간부(오른쪽)



지난 4월 11일, 총학생회는 씻을 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다. 노동조합의 파업에 적대적인 학생들을 선동해 파업농성장을 폭력으로 짓밟은 것이다.

이날 노동조합은 용인에서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파업 농성장에는 50대의 나이 지긋한 조합원 20여 명만이 남아있었다. 그러나 농성장을 침탈한 총학생회 지지자 30여 명은 이에 아랑곳 않고 아버지뻘 되는 조합원들을 향해 폭력과욕설을 일삼았다.

이들은 나이든 조합원들의 목살을 잡고, 각목을 이용해 조합원들을 밀쳤다. 조합원을 향해 쓰레기를 던지며 조롱하는가 하면, 각목으로 바닥을 치면서 “개새끼”,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며 위협했다. 이 과정에서 한 57세의 조합원은 총학생회쪽 학생에게 밀려 넘어지며 허리를 다쳐, 전치 2주 진단을 받기도 했다.

이들의 폭력은 단지 조합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이들은 이날 우연히 농성장을 찾은 학생들에 대해서도 무차별적

인 폭력을 휘둘렀다.

플랭카드 양끝의 각목으로 조합원들과 함께 있던 학생을 찌르고 위협하는가 하면, 대자보 무단 철거에 항의하는 학생의 팔을 꺾어 비틀기도 했다. 용역강패나 할 짓을 총학생회가 저지른 것이다.

학생인가? 조폭인가?

이날 총학생회 지지자들은 노동조합에서 부착한 대자보와 현수막, 그리고 노동조합의 파업을 지지하는 학생들의 대자보를 갈기리 찢어버렸다. 그리고 이들은 대자보 훼손에 항의하는 학생들에게 “니들은 노동조합과 같은 꼴통이잖아.”, “이런 대자보는 찢어도 괜찮아.”라며 조롱했다. 도대체 누가 총학생회에게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대자보를 뜯어버릴 권한을 주었는가?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쉽게 짓밟아도 된단 말인가?

이 뿐이 아니다. 며칠 뒤 4월 11일의 만행

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총학생회 지지자들이 들이닥쳐 기자회견을 방해했다. 이들은 다른 학우들이 기자회견을 볼 수 없게 기자회견장을 둘러쌌으며, 정상적인 기자회견 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또한 촬영을 하고 있던 한 학우에게 팻말을 집어던지며 촬영을 방해하기도 했다.

이렇게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의사표현의 자유를 부정하고 더 나아가 폭력으로 위협하는 총학생회의 행위는 7~80년대 군사독재 정권을 방불케 한다.

이런 총학생회가 외대를 대표한다는 것 자체가 외대 학우들의 수치다. 따라서 폭력을 동원해 노동조합의 파업을 파괴하고 외대 학우들의 표현의 자유를 짓밟은 총학생회는 지금 당장 물러나야 마땅하다.

총학의 '학습권 수호' 논리에 동조하지 말아야 한다

총학생회는 나이 든 조합원들이 모여 있는 파업농성장에 난입해 각목으로 위협하고, 욕설을 퍼붓고, 파업 지지 학생들의 대자보를 마음대로 찢고 다니는 만행을 '학습권 수호'라는 논리 하나로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논리는 근색하기 짝이 없다. 총학생회가 헌법에 보장된 파업권을 폭력과 욕설로 짓밟고 조합원들과 파업지지 학생들을 협박한 패륜아적 행동은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 행동하는 척 하지만, 사실 그 동안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이해관계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오히려 총학생회는 등록금을 인상하고 학생들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는 학교당국과 한 편이냐 다름없었다.

학교가 올해 11.4%나 되는 사상초유의 두 자리수 등록금 인상을 강행할 때, 총학생회는 학교에 어떠한 진지한 항의도 하지 않았다. 학생들의 압력에 떠밀려 등록금 '마이너스 실천단'에 가입했다가, 정작 행동이 필요할 때는 등록금 인상반대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하며 같이 하기를 거부했다. 지금은 본분을 망각하고 파업을 막아야 한다고 실천단 활동은 안중에도 없다.

제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에 대한 적개심으로 가득해 파업장까지 와서 난동을 부린 전 부총학생회장 응일환은 작년 부총학생회장으로서 등록금 동결을 위해 더 싸우고자 하는 비상학생총회에 모인 학생들의 열망을 무시하고 등록금 4.47% 인상을 학교와 밀실에서 합의했다.



'학습권 수호' 논리로 폭력을 정당화하는 총학생회

총학생회가 진정으로 학생들을 위한다면 파업방해행위나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등록금 인상반대 투쟁에 나서고, 정부에 교육재정 확충을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학생과 교직원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불만을 영풍한 곳으로 돌리며, 외대의 열악한 교육환경과 비싼 등록금에 대한 책임이 마치 파업노동자들에게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파업노동자들과 학생들은 모두 학교

당국의 비민주적 행정의 피해자다.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해고하고, 정기적인 교섭조차 거부하고, 조합원 48명에게 조합탈퇴를 종용하는 등 헌법에 명시된 기본적 노동조합의 권리조차 무시하는 바로 그 학교가 학생 다수의 의사를 무시하고 사상초유의 등록금 인상을 강행했다.

뿐만 아니라 등록금 인상은 평범한 노동자들의 교육비 문제와 직결되어 있으므로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이 인상되면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도 이로운 것이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낮은 임금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등록금을 내기 위해 빚

을 져야 하는 현실은 학생들에게도 고통스런 현실이다.

또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는다고 해서 등록금이 자동으로 동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투쟁하지 않으면 등록금 동결은 불가능하다.

학교는 학생들과 노동자들을 서로 싸우게 함으로써, 임금은 낮추고 등록금은 올리려 한다.

따라서 학생들은 파업 때문에 일시적으로 불편을 겪더라도 노조파업을 지지하고, '학습권 침해'의 책임을 노조가 아니라 학교당국에게 물어야 한다.

우리 학생들은 학생들과 직원들을 분열시키려는 학교와 총학생회의 논리에 속지 말고, 결핍하면 탈세나 하는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고 전쟁에 낭비하는 돈을 교육비로 돌려 정부가 외대에 더 많은 투자를 하도록 요구하고 총학생회가 진지하게 등록금 투쟁에 임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함께합시다!

외대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 '총학생회의 폭력행위 사과 및 표현의 자유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외대 학생 모임에 참여합니다.

첫 모임 : 4월 17(일) 6시
문의: 011-9744-1561

이런 일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 총학생회의 폭력행위와 표현의 자유 탄압에 항의하는 의견을 보내주세요.

간단한 의견이라도 보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freespeech06@harmal.net)

- 총학생회에 항의하는 단체와 개인의 의견을 대자보나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발표주세요.

- 후원해 주세요. (국민은행 570202-01-027233 여승주)

- 매일 아침 (8시 30분~9시 10분) 정문 앞, 점심 (12시 30분~1시 10분) 학생식당 앞에서 진행되는 총학생회에 항의하는 캠페인에 함께 참여주세요. 매일 오시지 않아도 좋고, 잠깐 동안이라도 좋습니다.

총학생회장 임태용과 (전)부총학생회장 응일환의 우파적 전력

노조 파업 농성장 난동으로 자신의 우익적 본질을 유감 없이 드러낸 총학생회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외대의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총학생회의 전통에 척질을 해왔다. 올해뿐 아니라 작년에도 총학생회를 운영했던 이들의 행적을 살펴보면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 학우들을 경찰에 팔아 넘기기

작년에 이들은 총학생회에 당선되자마자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외대 학생들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탄압했다.

작년 1월 9일 총학생회는 총학생회실에서 주체사상 문건이 발견되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도 6인의 외대 학생들은 부당한 경찰의 출두 요구에 시달리고 있다.

외대 학생 80% 이상이 국가보안법 개정 및 폐지에 찬성(외대 학보 여론조사)하는데도, 학생들의 대표라는 총학생회가 학생들을 경찰에 팔아 넘긴 만행은 전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 민주적 총장 선출 희망

총학생회는 학생, 교수, 직원이 함께 민주적으로 총장을 선출하기 위한 대다수 학생들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고 민주총장 선출을 위한 운동을 파괴했다.

민주 총장 선출을 요구하며 학생들은 서명운동, 선전전, 집회 등을 진행했고 노동자들은 파업을 준비했다.

하지만 총학생회는 사실상 민주적 총장 선출을 거부하는 입장을 밝히며 노동조합에게 대체인력을 투입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파업을 좌절시켰다.

덕분에 박철 총장은 학교 밖에서 삼삼오오 흩어져 몰래 진행된 교수들만의 '도둑 투표'로 총장에 당선될 수 있었다.

● 등록금 인상 반대 운동 회피

총학생회는 등록금을 인상한 총장에 항의하기는커녕 신입생 O.T.에 총장을 초청하고 확대 운영위 자리에서 등록금 인상을 주장하는 총장의 글을 배포하는 등 등록금 인상에 동조했다.

O.T.에서 등록금 인상에 항의하는 학생들은 그 자리에서 집단적으로 총장에게 항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총학은 이런 목소리

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대자보 등을 통해 지난 등록금 인상 반대 운동을 '폭력적' 이었다고 매도했다.

총학생회는 올해 총장의 11.4% 등록금 인상을 사실상 받아들이며 등록금 인상으로 신음하는 학우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총학생회는 '마이너스 실천단'에서 만든 등록금 인상 반대 유인물을 동의할 수 없다며 아침선전전을 거부하기도 했다.

● 노조에 대한 적개심

현 총학 간부들은 노조에 깊은 적개심을 드러내 왔다.

2004년 노조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 반대, 2005년 '민주적 총장선출을 위한 노조 파업' 파괴 대체인력 모집 선동, 올해 노조 파업장 난동 등 노조 파업 파괴의 현장에는 항상 그들이 있었다.

이들은 항상 등록금을 인상한 학교에 맞서 투쟁하는 것은 낯선인 채, 직원들의 임금인상을 공격하는 데만 앞장서 왔다.

● 민주주의 압살

총학생회는 자신들이 불리할 경우에는 어떠한 민주적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작년에 등록금 4.47% 인상을 어떤 회의 체계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받아들였다.

지난 3월, 당시 부총학생회장이었던 응일환이 제적되자 전학대회에서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조차 무시한 날치기 투표를 통해 그를 재선임시키려 했다. 전학대회 대의원들은 이 투표의 비민주성을 지적하며 재투표할 것을 요구했으나 총학생회는 막무가내로 개표를 진행했다.

응일환에 대한 학생들의 불신 덕분에 개표결과 그의 재선임 건은 부결됐지만, 이 과정에서 총학생회는 자신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 민주주의를 내팽개칠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탄압, 등록금 투쟁 회피, 민주적 총장선출 운동 희망, 정당한 요구를 하는 노동조합의 파업 파괴 등이 총학생회가 해온 일이다.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외대 학우들은 지금 당장 총학생회에 반대하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

직원노조 파업 정당하다

노동조합은 지난 2월경부터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학교측에 꾸준히 요구해왔다. 그러나 학교 당국은 교섭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교섭을 회피해왔다. 또한 노조의 강력한 요구로 어렵사리 성사된 교섭 테이블에서조차 소병국 총무처장을 비롯한 학교 측 교섭위원들은 사소한 트집을 잡으며 금세 교섭을 거부해버렸다. 그리고 조합원 48명에게 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공문을 보내, 노동조합 파괴를 시도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4일 학교는비정규직 여

성 노동자 5명을 일방적으로 해고했다. 학교는 여성노동자들의 평소 근무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으려고 해고한 것이다.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게 된 것은 이처럼 학교측의 불성실한 교섭과 일방적인 해고 때문이었다.

비민주적 방식으로 선출된 박철 총장은 비민주적 총장 선출방식에 반대한 노동조합에 보복이라도 하듯 노동조합을 파괴하려 애쓰고 있다. 애초에 학교가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성

실히 임하고 노조파괴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노조가 굳이 파업에 돌입할 이유가 없었다. 그러므로 파업의 모든 책임은 노조가 아니라 학교 당국과 박철 총장에게 물어야 한다.

지난 1998년 비리 재단 척결을 위한 투쟁에서 학생과 직원들은 함께 투쟁해 승리한 경험을 갖고 있다. 또한 올 상반기 4년제 대졸 취업자 중 25%가 비정규직일 정도로 비정규직 문제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게다가 헌법에 보장된 노조의 단결권이 학교에 의해 침해된다면, 학교는 학생들의 권리와 자치권을 위협할 것이다. 따라서 노조의 파업은 우리 학생들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며, 지지를 보내야 할 일이다.

각목 든 폭력시위를 평화시위라 억지주장 - 총학생회는 거짓선동 중단하라

폭력 집회 현장을 목격한 학생들의 증언

“법대에 다니는 제가 아는 한 총학생회 집행부는 플래카드 각목을 갖고 바닥을 치면서 ‘X발’이라고 욕하며 절 위협하더군요.”

“이 학생은 조합원에게도 상욕을 입삼으며 플래카드 각목을 어깨에 걸치고 위협하더군요. 이래도 폭력이 없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 신방과 02학번 학생

“한 학생은 ‘내가 니들 주려고 등록금내는 줄 알어!’라며 50대의 나이 지긋한 조합원들에게 눈을 부라리며 호통을 치더라고요. 정말 해도 너무하더라고요.”

- 행정학과 05학번 학생

“저는 총학생회 집행부들이 대자보를 찢는 것을 말리러 다가갔다 팔이 비틀러 꺾였지 뭐예요. 두 명이 저에게 달려들어 팔을 비틀곤 제 앞에서 대자보를 찢어버리더군요.”

“총학생회 집행부들이 플래카드 각목을 갖고 진입하는 와중에 저는 복부를 가격당했어요.”

- 영어대 99학번 학생



이래도 각목으로 위협한 것이 아닌가?(위) 사람 키만한 각목. 이래도 “팻말대” 일 뿐인가?(오른쪽)

각목 논란의 진실

“총학생회는 각목은 없었고 팻말 지지대만 있었다고 하는데, 설사 그게 진실이라고 해도 그 팻말 지지대가 흥기로 사용되면 각목과 다를 바 없는 것 아닌가요? 전 두 학생이 양쪽에서 각목을 눌러 잡고 조합원들을 밀치는 것을 봤어요.”

- 행정학과 05학번 학생



“한 학생이 각목을 땅에 ‘탕!탕!’ 치며 폭언을 입삼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마치 집회 현장에서 전투경찰들 바로 앞에서 있는 기분이었어요.”

- 당시 현장에 있던 여성 조합원

총학생회의 폭력 시위에서 전치 2주 부상당한 김OO 조합원 인터뷰 “그날 일만 생각하면 울분이 터진다”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학생들이 대자보를 막 찢으며 들어오기에 난 학생들을 말리러 다가갔어. 근데 검은 가죽재킷을 입은 한 학생이 갑자기 밀쳤고, 난 중심을 잃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지.”

“난 너무 화가 나서 그 검은 가죽재킷을 입은 학생을 쫓아가 항의하려 했는데, 이 학생이 날 노려보며 ‘이 새끼야! 니들이 뭐라고 우리 들어오는 걸 막어.’라고 욕설을 해대는 거야.”

“더군다나 이 학생이 또 다시 대자보를 뜯으려 해서 이것을 말리러 다가갔는데, 옆에 있던 총학생회 점퍼를 입은 한 학생이 ‘넌 뭐야!’라고 하며 두 손으로 날 밀쳤지. 이번엔 머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크게 넘어졌어.”

“아니어도 허리에 지병이 있었는데 그렇게 크게 넘어졌으니 아프지 않을 리가 없었지. 그래도 난 그 학생이랑 대화를 해보려고 절뚝거리며 다가갔는데, 이번엔 그옆에

있던 총학생회장이 ‘아저씨! 이거나 가져가요!’ 하면서 돌돌 말려진 비닐을 나한테 던지는 거야.”

“난 너무 억울했지만 더 쫓아갔다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단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다른 조합원들이 있는 장소로 돌아가 앓을 수밖에 없었어.”

▶ 57세의 이 조합원은 이 사태가 끝난 직후 정형외과에 찾아가고 ‘요추부 염좌 2주 진단’을 받았다. 현재 이 조합원은 당시 사건의 후유증으로 요통뿐 아니라 심한 두통 증세도 있는 상태. “학생들이 노조원에 대해 부상을 입힌(일)은 ... 실제 없었다”는 총학생회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다.